

#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Gender role Attitude and Social Competency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정순화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강사 이경희

Dept. of Child & Family, Duk Sung Women's Univ.

*Lecturer: Soon Hwa Chung*

Dept. of Family Welfare, Dong Duck Women's Univ.

*Lecturer: Kyung Hee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gender role attitude measured by component model and social competency. Subjects were 232 elementary school children: 113 4th graders and 119 6th grade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scores of gender role attitude with age and sex variable. And among three dimensions of component model(i.e., gender label-component links, within-component links, between-component links), the difference was most discriminant in gender label-component link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ttitude and social competency. Among three dimensions of gender role attitude, the most predictor variable for social competency was gender label-component links. And among four dimensions of social competency, the most effective criterion variable for gender role attitude was leadership.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competency score with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sex of children as well as gender role

attitude.

In conclusion, children's gender role attitude influence their social competency. More flexible gender role attitude they have, more improved in their social competency, especially in boys.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한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사회적 능력이라 한다. 사회적 능력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며 인간발달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급속도로 물질문명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인간소외가 문제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사회적 적응능력은 이후의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 실패한다고 한다. 이같이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 연구를 통해 이후의 사회·인지적 발달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 연구의 필요성을 배가시켜 주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연령 및 성별변인들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으며(이경희, 1993), 동시에 성역할 개념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상당수 이루어졌다(Doescher & Sugawara, 1990).

개인의 성역할 개념과 적응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차도 성역할 태도보다는 정체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들 연구는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통적인 성 유형화된 규범은 여아에게

는 학업적, 직업적 성취면에서, 남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논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Katz, 1986),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성역할 사회화의 목표로서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이 대두되었다(Bem, 1981).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과 개인의 적응능력을 살펴보는 것과는 별도로, 초기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아동이 보이는 융통성의 정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은 뚜렷한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유가효, 1994). 아동은 반드시 초기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여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성역할 태도와 행동간에는 상관이 별로 없다(Bussy & Bandura, 1992)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태도는 이후의 성역할 발달의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다(Carter & Patterson, 1988). 성 도식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역할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도식에 일치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즉 자신의 고정관념과 행동을 부합시키려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사회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초기의 성역할 태도는 이후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역할 태도에서의 융통성과 양성적 성유형화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이인례, 1990; Carter & Levy, 1988)고 한다.

이처럼 초기의 성역할 태도가 이후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바탕이 될 뿐만아니라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및 이

와 관련된 기타 변인들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1)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는 상관이 있는가?
- 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무엇인가?
- 3) 아동의 성역할 태도군과 사회적 능력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성역할 태도의 발달 및 관련변인

성역할이란 어떤 문화 내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라 인정되고 기대되는 행동양식, 태도, 인성특성 등을 포함하는 행동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문화권마다 상이하며 한 문화권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상이하다. 아동이 그 사회에 적절한 성역할 개념을 획득해 나가는 성 유형화 과정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성과 관련된 역할에 대한 규범이 바로 성역할 태도이며, 이는 아동의 연령 및 성별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연령별로 나이 든 아동에 비해 어린 아동의 경우, 보다 고정관념화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 제한된 인지적 능력 때문에 현저하게 눈에 띄이는 성 도식과 관련시켜 자신을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동이 성숙해져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도식이 존재하게 되면 성 도식이 그들의 사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Martin & Halverson, 1981). 또한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에 문화적인 영향으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의 구분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Carter & Levy, 1988). 이러한 연령 및 성별변인의 영향으로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증가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두드러진 성역할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유가효, 1994; Levy, 1989).

이러한 성역할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만을 측정했으나, Deaux와 Lewis(1984)는 보다 복잡한 성역할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 구성요소내의 연합, 구성요소간의 연합으로 파악하는 구성요소 모델(Component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우에도 성역할의 구성요소는 적어도 직업, 성격특성, 외모, 활동의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Deaux & Lewis, 1984; Martin, Wood & Little, 1990) 그 연합에는 세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지금까지의 대다수 성역할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인데, 이는 어떤 사람의 활동, 직업, 성격특성이나 외모를 근거로 그 사람의 성별을 추론하는 것이다. 즉 군인(직업)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성(성별)이며, 드레스를 입고 있는(외모) 사람은 여성(성별)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은 구성요소내의 연합인데, 직업, 성격특성, 활동, 외모 가운데 한 구성요소를 알면(활동: 바느질 하기) 동일한 구성요소내에서 그 사람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활동: 요리하기). 세번째 형태의 연합은 구성요소간의 연합인데, 이는 한 구성요소의 성역할 특성을 알면(외모: 어깨가 넓적하다) 다른 구성요소내에서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성격특성: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연합형태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보에 근거해서 성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다(Deaux & Lewis, 1984)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 모델에 근거해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고,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사회적 능력의 발달 및 관련변인

사회적 능력이란 그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내포하고 있는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을 O'Mally(1977)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능력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과정으로 파악하는 동물행동학적 관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는 사회적 상호작용론의 관점, 여러가지 분리된 인성적 구조요인의 부가적 결과로 보는 인성의 구조이론적 측면, 혹은 개인의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네가지 관점은 개념과 접근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능력이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경희, 1993).

이러한 사회적 능력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유아기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의 안정성의 측면이나 다른 발달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취학전 유아들은 아직 적절한 사회적 능력이 발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정영숙, 1992), 7세 이후의 조망수용 능력의 발달 및 이후의 사회적 성공의 지표로서도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아동이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등을 적절한 사회적 판단과 자기조절을 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사회의 성원이 되어가기 때문이다(Perry & Bussy, 1984). 또한 이는 아동의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의 사회적 능력 점수가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이경희, 1993; 이경희, 최경순, 1992; Doescher & Sugawara, 1990; Ford, 1992),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고 있었다(Eisenberg, Bartlette & Haake, 198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는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김선미, 1994).

## 3.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앞서 문제제기된 바와 같이 개인의 성역할 개념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역할 정체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성, 1991; 김영희, 1989). 그러나 초기의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태도가 이후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뚜렷한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킨다(Doescher & Sugawara, 1990)고 한다. 고정관념화된 태도를 가질수록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놀이친구나 놀이방식을 선택하며,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닐수록 자신의 성과 무관하게 이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같이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아동은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놀이친구나 놀이방식 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성의 것도 선택하므로 사회적 능력발달에 훨씬 유리하다(Carter & Levy, 1988; Slaby & Frey, 1975)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성역할 융통성의 정도와 아동의 사회적 적응능력과는 긍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아의 경우에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나 남아에게는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Perry & Bussy, 1984; Serbin & Sprafkin, 1986; Sprafkin, Serbin & Elman,

1982). 이는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도록 강요하는 문화적 압력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 결과 남아는 여아에 비해 더 일찍부터 보다 고정관념화된 태도를 보이며(Williams, Benett & Best, 1975), 동시에 사회적 행동특성은 곧 여성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할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적절한 행동과는 상반되는 공격성, 방해성 등은 전형적인 남아의 행동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성역할 특성에 일치하려고 시도하는 남아는 보다 적응상의 문제를 갖게 된다(Doescher & Sugawara, 1990). 아동의 성차는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성별에 따른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에서의 성차가 학령전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면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성차요인보다는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으며(Doescher & Sugawara, 1990),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성역할 정체감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및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113명, 6학년 119명, 성별로는 남아 132명, 여아 100명, 총 232명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성역할 지식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성역할에 대한 구성요소내의 연합과 구성요소간의 연합의 개념을 8세경 습득하므로(Martin et al., 1990) 그 이후의 아동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동시에 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120부 씩 총 240부의 질문지

를 배부하여 그 가운데 회수되지 못했거나 내용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232부를 연구결과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과 6학년 각 1개 학급 씩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은 1996년 5월 6일부터 1주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 2. 측정도구

##### 1) 성역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Deaux와 Lewis의 구성요소모델(1984)을 근거로 정순화(1993)가 제작한 2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1-14문항(성별과 구성요소 연합)까지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모두'의 응답범주를, 15-28문항(구성요소내 연합, 구성요소간 연합)까지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가지 응답범주 가운데 '남자.여자 모두',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의 응답범주에는 1점을, '남자', '여자',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응답범주에는 0점을 주었다. 점수의 범위는 1-28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척도는 8명의 아동학 전공자들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alpha$ 는 .67, 2주 간격으로 실시한 성역할 점수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능력척도는 이경희(1993)가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주도성 10문항, 사교성 6문항, 책임감 7문항, 개방성 4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된 Likert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요인타당도는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별로 .64-.79로 나타났으며, 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alpha$ 는 .68-.81까지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분석에는 변량분석을 하고,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분석에는 단순상관분석과 정준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역할 태도 이외에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성역할 태도

아동의 전반적인 성역할 태도는 연령( $F=12.27, p<.01$ ) 및 성별( $F=9.95, p<.01$ )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6학년 아동의 성역할 태도점수( $M=4.24$ )가 4학년 아동( $M=2.82$ )에 비해 높았고 여아의 성역할 태도점수( $M=4.29$ )가 남아( $M=2.99$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별(Katz, 1986; Lee & Sugawara, 1986)과 연령(Kohlberg, 1966; Serbin & Sprafkin, 1986)변인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은 보다 성역할 태도에서 융통성을 보이며,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압력을 덜 받는 여아의 경우 보다 융통성있는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성별과 구성요소 모델의 세 영역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아동의 성역할 태도의 전체점수 범위가 0-28점(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0-14, 구성요소내 연합: 0-7, 구성요소간 연합: 0-7)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표 1>의 점수는 아동의 성역할 태도가 상당히 고정관념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성역할 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여아가 남아보

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특히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표 2>에서 연령, 성별은 성역할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령, 성별에 따른 영역별 평균점수

성역할 태도	4학년		6학년	
	남	여	남	여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2.70	3.02	3.32	5.29
구성요소내 연합	1.30	1.61	1.40	1.70
구성요소간 연합	2.29	1.95	2.35	2.63
전 체	6.29	6.59	7.06	9.61

<표 2> 연령, 성별에 따른 영역별 점수의 다변량분석

성역할 태도	Wilks' lambda	F
연령	.95	4.15**
성별	.95	3.61*
연령 × 성별	.87	2.19

\*  $p<.05$  \*\*  $p<.01$

### 2.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으며, 이는 특히 주도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을 어

<표 3> 아동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 관계

사회적 능력	성별과 구성요소	구성요소내	구성요소간	전 체
주도성	.06	.12	.22***	.18**
사교성	.08	.00	.11	.09
책임감	.06	.01	.10	.07
개방성	.04	.03	.03	.04
전 체	.07	.05	.15*	.12

\*  $p<.05$  \*\*  $p<.01$  \*\*\*  $p<.001$

는 정도 설명해 주며 이 외에 사회적 능력에 대한 배경변인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고찰된 배경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성역할 태도,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한 사회적 능력의 설명력은 7.8%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F	p
사회적 능력	아동의 성별	.21	.14	.078	9.06	.0004
	어머니 교육수준	.28	-.18			
	성역할 태도	.16	.13			
	(구성요소간 연합)					

나아가 이러한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예측변수군으로 하고 사회적 능력을 평가변수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1 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 아동의 성역할태도군과 사회적능력군과의 관계

정준함수	Canonical R	R <sup>2</sup>	정준근	F(Wilks $\lambda$ )	df
제1정준함수	.27	.08	.08	1.86*	12
제2정준함수	.14	.02	.02	.72	6
제3정준함수	.03	.00	.00	.07	2

\* p < .05

유의한 제 1 정준함수에 대해서 예측변수군 및 평가변수군의 가중치와 적재치는 <표 6>과 같다.

정준적재치가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성역할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구성요소간의 연합(.91)이고 다음은 구성요소내의 연합(.67)이었다. 적재치가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주도성(.86)으로 나타났다. 평가변수군에 대한 예측변인의 정준적재치는 구성요소간의 연합.

<표 6> 예측변수군 및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변 수 군	예측변수군의 정준함수		평가변수군의 정준함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예측변수군				
성역할태도I	-.22	.10		.03
성역할태도II	.42	.67		.18
성역할태도III	.82	.91		.25
평가변수군				
주 도 성		.24	1.43	.86
사 교 성		.09	-.15	.34
책 임 감		.07	-.61	.25
개 방 성		.05	-.12	.17

25)이 다른 성역할태도에 비해 높고 예측변수군에 대한 평가변수군의 정준적재치는 주도성(.24)이 가장 높다. 이로 미루어 예측변수로는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평가변수로는 주도성이 서로 관계가 큼을 알 수 있다. 예측변수군인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표 7>의 분산설명률을 보면 더욱 확연하다. 아동의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의 하위 영역 가운데 주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5.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7> 예측변수군에 의한 평가변수군의 분산설명률

	분 산 설 명 률
주 도 성	.055
사 교 성	.009
책 임 감	.005
개 방 성	.002

또한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성별, 연령변인을 통제한 경우의 정준상관 분석결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6학년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6학년 남아에 대한 예측변수군 및 평가변수군의 가중치와 적재치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정준적재치가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구성요소간의 연합.

〈표 8〉 연령,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군과 사회적 능력군과의 관계

집 단	Canonical R	R <sup>2</sup>	정준근	F(Wilks λ)	df
4학년 남아	.288	.083	.091	.72	12
4학년 여아	.366	.134	.154	.54	12
6학년 남아	.553	.306	.441	2.15*	12
6학년 여아	.459	.210	.266	1.19	12

\* p < .05

〈표 9〉 예측변수군 및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6학년 남아)

변 수 군	예측변수군의 정준가중치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예 측 변 수 군				
성별과 구성요소연합	-.06	.27		.15
구성요소내 연합	.10	.46		.25
구성요소간 연합	.98	1.00		.55
평 가 변 수 군				
주 도 성		.69	1.51	.38
사 교 성		.11	-.48	.06
책 임 감		.06	-.77	.03
개 방 성		.29	.19	.16

98)이었고, 적재치가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주도성(.38)이고 다음이 사회성으로 나타났다. 평가변수군에 대한 예측변인의 정준적재치도 구성요소간의 연합(.55)이 다른 성역할 태도의 영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예측변수군에 대한 평가변수군의 정준적재치는 주도성(.6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예측변수로는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평가변수로는 주도성이 서로 관계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0〉의 분산설명률을 보면 더욱 확인하는데, 6학년 아동의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 가운데 주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이 14.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방성이 2.7%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적응능력과의

〈표 10〉 예측변수군에 의한 평가변수군의 분산설명률(6학년 남아)

분 산 설 명 륜	
주 도 성	.147
개 방 성	.027
사 교 성	.003
책 임 감	.001

관계에 대해서는 전술한 전통적인 성 유형화 모델, 양성성 모델, 남성성 모델의 세가지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동기의 성역할 태도와 관련시켜 본 연구는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뚜렷한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초등학교 아동일 경우, 오히려 성역할 태도와 관련시켜 파악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소 모델에 근거해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과 성별변인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를 보였다. 성 도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성 도식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 아동은 제한된 인지적 능력 때문에 현저하게 눈에 띄는 특성을 지닌 성 도식과 관련시켜 자신을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동이 인지적으로 성숙해져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형태의 도식이 존재하게 되면 그들 자신을 무수한 역할이나 집단에 따라 규정하게 되어 성 도식은 사고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Markus, Crain, Bernstein & Siladi, 1982; Martin & Halverson, 1981).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여아가 남성적인 역할을 하거나 특성을 보일 때는 남자같은 여아(tomboy)로 취급되어 비교적 자유로우나, 남아의 경우에는 여성적 역

할을 하거나 특성을 보일 때는 여자같은 남아(sissy)로 취급되며 이를 회피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남성적인 성역할 특성이 보다 높게 평가되고 여아에게는 남아의 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남아에게는 여아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사회문화적인 압력으로 인해 남아의 성역할은 보다 제한적이며, 상반되는 성역할에 대한 거부현상도 남아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난다(Perry & Bussy, 1984).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영역은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이 성별 및 연령변인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판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성요소내의 연합, 구성요소간의 연합에 대한 성역할 지식은 계속 증가하지만, 성역할태도는 이와는 달리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 즉 성 명칭화(gender labeling) 개념의 습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도식이론의 관점에서는 주어진 대상의 특성에 대해 남성적,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성 명칭화 개념의 습득 및 그 결과 특징집단에 대한 자신의 소속감을 인식하게 되는 기본적인 정체감의 습득이 성 유형화된 행동이나 태도의 중요한 동인으로 설명하고 있다(Martin & Little, 1990; Serbin & Sprafkin, 1986).

또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구성요소간 연합),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설명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아동의 생물학적 성차 자체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근거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 연구결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의 하위영역별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성역할 태도는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의 영역에서 설명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반면, 성차변인은 개방성에 대해서만 설명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연령, 성별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6학년 남아의 경우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6학년 여아의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설명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Doescher와 Sugawara (1990)의 주장과 일치하며, Sprafkin 등(1982)의 연구에서도 성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능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성 도식의 영향을 크게 받고, 그 결과 이와 일치하는 정보를 쉽게 구조화하고 이와 관련시켜 정보처리를 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반되는 성역할 특성의 수용을 수용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만,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동의 경우 상반되는 성역할에 대한 수용이나 참여가 용이하다(Bem, 1981; Carter & Levy, 1988; Serbin & Sprafkin, 1986). 그 결과 여성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남아는 보다 협동적이며 규칙이나 지시를 준수하며 이에 잘 순응하는 반면, 남성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여아는 수줍음을 덜 표현하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정준분석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가장 예측력 있는 변수는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구성요소간의 연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역할의 하위영역 가운데 주도성을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연령, 성별에 따른 정준분석을 한 결과, 6학년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성역할의 세 영역 가운데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사회적 능력에 대해 가장 예측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사회성의 하위영역 가운데 주도성을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가운데 주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남아의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아의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는 자신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이끌며 다른

아이에게 지시를 하는 주도성 및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 느낌, 견해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폭넓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게끔 준비시켜 주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특히 남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적응상의 문제들은 공격성, 방해성, 도전성, 화냄 등의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의 성역할에 보다 일치하려는 태도를 가진 남자는 보다 적응상의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다(Doescher & Sugawara). 동시에 자신의 성역할에 일치하도록 보다 많은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는 남자의 경우 적응상의 문제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Bem, 1981).

또한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단순히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만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보다 구성요소 모델을 사용할 경우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설명은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 아동의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특히 주도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남자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성유형화된 규범은 적어도 사회적 능력면에서는 남자의 경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에 대한 본 연구결과와 성역할 정체감과 사회적 적응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의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가 이후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기의 성역할 태도가 이후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근거가 된다는 관점에 동의하며 동시에 이는 동일한 연구대상에 대한 계속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보다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미성(1991). 성역할 정체감, 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선미(1994).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김영희(1989).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4) 유가효(1994).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27-144.
- 5)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6) 이경희, 최경순(1992).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83-97.
- 7) 이인례(1990).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8) 정순화(1993). 아동의 성 도식과 성관련 과제 의 기억 및 선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9) 정영숙(1992).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10) Bem, S. L.(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4), 354-364.
- 11) Bussy, K. & Bandura, A.(1992).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gender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3, 1236-1250.
- 12) Carter, D. B. & Levy, G. D.(1988). Cognitive aspects of early sex-role development: The influence of gender schemas on preschoolers' memories and preferences for sex-typed toys and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9(3), 782-792.
- 13) Carter, D. B. & Patterson, C. J.(1982). Sex roles as social convention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nceptions of sex-role stereotypes.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12-824.

- 14) Deaux, K. & Lewis, L. L.(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15) Doescher, S. M. & Sugawara, A. I.(1990). Sex role flexi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22, 111-123.
- 16) Eisenberg, N., Bartlett, K. & Haake, R.(1983). The effects of nonverbal cues concerning possession of a toy on children's proprietary and sharing behavio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79-85.
- 17) Ford, M. E.(199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18) Katz, P. A.(1986). Modification of children's gender-stereotyped behavior: General issues and research considerations. *Sex Roles*, 21, 803-823.
- 19) Kohlberg, L. A.(196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20) Lee, J. Y. & Sugawara, A. I.(1986). Awareness of sex-trait stereotypes among Korean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7, 161-170.
- 21) Levy, G. D.(1989). Relations among aspects of children's social environments, gender schematization, gender role knowledge and flexibility. *Sex Roles*, 21, 803-823.
- 22) Markus, H., Crain, M., Bernstein, S. & Siladi, M. (1982). Self-schema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38-50.
- 23) Martin, C. L. & Halverson, C. F. Jr.(1981). A schematic processing model of sex typing and stereotyp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4), 1119-1134.
- 24) Martin, C. L., Wood, C. H. & Little, J. K.(1990). The development of gender stereotype components. *Child Development*, 61, 1891-1904.
- 25) O'Mally, J. M.(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 Palmer Quartely*, 23 (11), 29-44.
- 26) Perry, D. & Bussy, K.(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27) Serbin, L. A. & Sprafkin, C. A.(1986). The salience of gender and the process of sex typing in three to seven-year 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1188-1199.
- 28) Slaby, R. G. & Frey, K. S.(1975). Development of gender constancy and selective attention to same-sex model. *Child Development*, 46(3), 849-856.
- 29) Sprafkin, C., Serbin, L. A., & Elman, M.(1982). Sex-typing of pla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young children: An empe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559-568.
- 30) Williams, J. E., Bennett, S. M. & Best, D. L. (1975). Awareness and expression of sex stereotyp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5-642.